



시어 정민주 | 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 / 시인
 (mypoemmylife@hanmail.net)

하천과 우리 설화 6 북한강(北漢江)

하천과 우리 설화 여섯 번째 주인공은 북한강이다. 북한강은 한강의 지류 가운데 가장 긴 강으로 다른 하천에서보다 유독 서민들에 얽힌 설화가 풍부하다. 특히 춘천시는 북한강 유역 내에서 최대 거점도시였는데, 아래에 소개할 설화들도 춘천지역의 북한강 설화가 대부분이다.

도미설화¹⁾

도미(都彌)는 백제 사람이다. 비록 인간이 미천한 백성이지만 자못 의리를 알았으며, 그의 아내는 용모가 아름답고 또한 절개를 지키는 행실이 있어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개루왕(蓋婁王)이 말을 듣고 도미를 불러와서 그에게 말했다.

“무릇 아내의 덕은 비록 절개가 굳고 결백한 것으로서 제일로 삼지만, 만약 으스스하고 껌껌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로써 꼬인다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도미는 대답했다.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으나 제 아내만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왕은 이를 시험하고자 하여 도미를 어떠한 일로써 머물러

두고 한 근신(近臣)을 시켜 왕의 의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밤에 도미의 집에 가게 했다. 사람을 시켜 먼저 왕이 왔다고 알리고는 도미의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오래 전부터 네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는데, 도미와 내기를 하여 너를 얻게 되었다. 내일 너를 맞아들여 궁녀로 삼게 되었으니 이후부터는 네 몸은 내 물건이 된다.”

드디어 간음하려고 하니, 아내는 말했다.

“국왕께서는 거짓말이 없을 것이오니, 제가 어찌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물러 나와서 한 계 집종을 단장시켜 왕을 모시게 했다.

개루왕은 후에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미에게 없는 죄를 씌워서 그의 두 눈동자를 빼고 사람을 시켜 끌어내어 작은 배에 태워서 강 위로 띄워 보냈다. 그리고는 마침내 도미의 아내를 끌어들여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니, 아내는 말했다.

“지금 남편은 이미 없어졌으니, 흠뻑으로 능히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하물며 왕을 모시게 되었는데 어찌 감히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지금은 월경(月經)으로 온몸이 더러워져 있으니 다른 날에 깨끗이 목욕을 한 후에 오겠습니다.”

왕은 그 말을 믿고 이를 허락했다.

1) 「온달설화의 현대적 변용양상」 최현정,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7, p.13-16

아내는 곧 도망하여 강어귀에 이르렀으나, 건너지 못해서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으며 통곡하니, 갑자기 외로이 떠 있던 배가 물결을 따라 이르렀다. 이를 타고 천성도(泉城島)에 이르러 그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으므로 풀 뿌리를 캐어 먹었다.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의 산산(蒜山) 밑에 이르니, 고구려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옷과 밥을 주었다. 마침내 겨우 살게 되어 객지에서 평생을 마쳤다.

발치리의 아기장수²⁾

춘천군 동산면 조양리 발치리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인이 청춘과부가 되어 홀로 쓸쓸히 살고 있었다.

어느날 밤 비몽사간에 뇌성벽력이 치는데 투구와 철갑옷을 입은 장수가 과수대를 찾아왔다. 장수는 부인 앞에 가까이 나와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찾아왔으니 기뻐하소서」 하면서 부인에게 안기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부인이 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전에 없던 우물이 생겼고 우물 옆에 푸른빛을 띠는 구슬이 놓여 있었다. 부인이 그 구슬을 들고 무심결에 입에 물었다. 그 푸른 구슬은 향기가 나면서 입안에서 녹아 버렸다.

그 후부터 부인은 태기가 있었고 옥동자를 낳았다. 갓난아기는 기골이 장대하고 눈썹은 용의 수염 같고 눈동자는 빛났다. 그런데 아기는 사흘 동안 울지 않았다. 나흘되던 날 엄마라고 불렀다. 이레째 되던 날 부인이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기가 사라졌다. 어린애는 보리밭 한가운데 있는 밤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

갓난아기는 밤나무 위에서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아버님을 찾아 하늘나라로 갑니다. 제가 떠난 후 어머니가 병환이라도 나시거든 밤나무 아래 꿩 한 쌍이 졸고 있을 터이니 고와 잡수시면 병환이 나으실 겁니다。」 말하고 밭 전(田) 꿩치(稚) 골곡(谷)이라고 마을이름을 말하더니 북쪽 하늘로 사라져 버렸다.

그 후부터 마을 이름을 전치곡리 또는 발치리라 했고, 매년 3월에 성황제를 지냈다.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왔다고 한다.

효자동과 산삼켄 거두리³⁾

옛날 효자동각이 지금의 효자동에 살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총각은 근심과 한숨과 눈물로 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대룡산엘 가면 시체 세구가 있을 것이다. 그 중 맨 가운데 시체 목을 잘라 고아서 다려 드리면 쾌차할 것이니라。」

이튿날 총각은 목욕제계하고 산신령님이 일러준 대로 대룡산을 찾아갔다. 아무리 대룡산 골짜리를 뒤져도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지친 총각은 고목나무 그루터기에 걸터 앉았다.

「산신령님이 거짓말은 안 하시겠지만 이 넓은 산속 어디에서 찾는다지, 아니야 내 정성이 부족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거야.」 혼자 자문자답하면서 옷깃을 여미고는 다시 산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려 할 때 골짜기 중턱 양지 바른 곳에 과연 시체 세구가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감히 시체의 목을 벨 용기가 나질 않았다.

「사람의 도리로서 어떻게 감히 죽은 시체의 목을 벤담, 산신령님도 너무 하시지.」

총각은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신령님의 말씀이니 저 시체의 목을 베어도 죄는 되지 않겠지.」 하고는 용기를 내어 시체의 목을 잘랐다. 시체의 목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총각은 어쩌나 무섭고 죄스러운지 몸둘바를 몰랐다.

이튿날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하늘에 빌었다.

「신령님 신령님께서 시키는대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의 어머니의 병환만 낫게 하여주소서.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성들여 빌고는 정화수를 떠다가 시체의 목을 고았다. 몇 시간을 고았는지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총각은 정성껏 다린 시체의 물을 어머니께 들었다. 어머니는 단숨에 마

2) 우리절을 찾아서: 역사속의 우리사찰 이야기: 48곳 불교 현장에서 조근조근 들려주는 우리 역사 이야기, 신대현, 서울: 해안, 2010, pp. 89

3) 우리절을 찾아서: 역사속의 우리사찰 이야기: 48곳 불교 현장에서 조근조근 들려주는 우리 역사 이야기, 신대현, 서울: 해안, 2010, pp. 95-96



셔 버리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하였다 날이 세자 어머니는 내가 언제 앓았느냐는 듯 씻은 듯이 나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시체의 머리가 아니라 천년묵은 산삼이었던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총각의 효성에 감동한 산신령이 산삼 영약을 시체로 화해서 내려 준 것이다.

그리하며 시체의 목을 들고 지나온 곳을 거수리라 불렀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거두리로 바뀌어졌으며 그 총각 효자가 살던 곳을 효자동이라 불러 오늘에 이르렀다 한다.

잣방산과 덕쇠의 효도 ⁴⁾

옛날에 덕쇠라는 마음씨 착한 머슴이 살았다. 나이 스물이 되어도 장가 갈 생각도 못하고 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였다.

십년동안에 받은 새경으로 눈 열마지기 정도는 살 수 있었지만 이참봉댁 머슴으로 놀러 앉아 일만 하였다. 어머니 한 분

만을 모시고 걱정 없이 화평하게 살아갔다.

「덕쇠야, 어서 빨리 장가를 가야지, 며느리 보고 손주 보고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어머니, 십년이건 이십년이건 눈 스무마지기를 살 때까지는 장가안 가겠어요. 가난한 주제에 장가를 가서 자식들을 고생시킬 바에야 차라리 안가는 것만 못합니다.」

「...오냐, 너 좋은 대로 해라, 부지런히 벌어서 자식들 고생시키지말아야지. 내가 못나서 너를 남의집 머슴살이를 하게 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는 갑자기 병을 얻어 몸져 눕게 되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낫기는커녕 더 해 갔다. 십년동안 새경 받은 것이 반이넘게 나가도록 약을 썼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신령님, 제가 모야는 것이라곤 눈 열마지기 살 돈 밖에 없습시다. 닳마지기가 없어졌지만 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제 목숨이라도 내 놓겠습니다. 그저 어머니 병만 낫게 해주소서...」

덕쇠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다가 장독대 옆에 놓고 빌었

다. 어느날 해 질 무렵 한 노승이 찾아와 염불을 했다. 덕쇠는 성심껏 시주를 했다.

「고맙소이다. 젊은이. 그런데 젊은이 어머니가 중환이시지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기 보이는 저 잣방산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큰 잣나무 두 그루가 있을 거여. 바른 쪽 잣나무에 달려 있는 잣 세 송이를 따다가 갈아서 그 물을 먹이시오.」 하고는 안개처럼 살아졌다. 덕쇠는 산신령이 나타나 계시해 주었음을 직감하고 산신령이 사라진 곳을 향하여 수없이 감사하다고 절을 하였다.

곧 바로 잣방산으로 치달려갔다. 과연 잣나무 두 그루가 있고 수 없이 많은 잣이 달려 있었다.

덕쇠는 신령님이 일러 주신 대로 세 송이만 따가지고 돌아와 정성껏 갈아서 그 물을 어머니께 드렸다.

잣물 약을 드신 어머니의 병환은 씻은 듯이 나아갔다. 오래간만에 덕쇠와 어머니는 웃음을 되찾았고 덕쇠는 더욱 열심히 일해서 새경으로 논 스무마지기를 샀다.

그 후 머슴살이를 청산하고 장가들어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 한다. 잣방산은 춘천군 남면 발산리와 한덕리 경계에 있는데 산봉우리가 마치 잣송이처럼 생겼다 한다.

당나라 공주와 뱀과의 사랑⁵⁾

신라때 상사병에 걸린 당나라 공주가 날이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었다. 공주를 사랑하는 뱀은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임금님은 나라 안에 있는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전부 불러들여 제를 올리는 한편 의원들을 불러들여 치료를 시켰다. 별 효험도 없이 공주의 병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고 뱀도 떨어지지 않았다. 임금님은 공주에게 「공주야,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면서 부처님께 지성껏 빌어보아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 해 보다면 필시 병이 낫을 것이다.」

공주는 부왕의 명을 받들고 그 날부터 자기 나라 안에 있

는 온 사찰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지성으로 부처님께 빌었다. 그러나 병은 끝내 나을 줄을 몰랐다. 공주는 뱀과 같이 살 수 밖에 없다고 결심하였다. 공주는 멀리 이웃 나라로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산 넘고 물을 건너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발길 닿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 땅이었다. 산자수명한 해동국의 산하를 두루 유랑하면서도 절을 찾아 불공을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춘천에 있는 청평사까지 오게 되었다. 공주는 자기 몸에 서려있는 뱀에게 「절에 들어가서 밥을 얻어올까 하오니 잠시 몸에서 내려오실 수 없겠습니까. 너무 피로해서 걷기가 힘겨워 드리는 말씀이오니 너무 고깝게는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여태까지 말을 안듣던 뱀이 그날은 순순히 말을 듣고 몸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

공주는 기이하고 신기한 생각이 들면서도 절에 들어가 밥을 얻어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뱀은 죽어있었다. 공주는 뱀을 만져보았다. 파삭 말라있었다. 공주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아갔다. 곧 바로 고국에 돌아와 부왕께 이 사실을 아뢰었다. 부왕은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공주가 정성으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린 업보이니라. 앞으로도 부처님 모시는 일을 추호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니라.」

이어 왕은 신하에게 명하여 청평사를 크게 짓게 황금을 보냈고 기둥에는 금을 올리게 하였다.

중국 당나라의 공주가 평민 청년과 사랑을 하게 되었다. 평민 청년의 사랑이 임금님께 발각되었다. 진노한 임금님은 청년을 처형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 뒤 청년이 처형된 형장에 뱀 한 마리가 나타나 궁중으로 기어들어와 공주의 몸에 서려서 떨어지지 않을었다. 공주는 비명에 간 애인의 화신임을 직감하고 부왕 대신 속죄하는 뜻으로 뱀을 안고 사찰 순례의 길에 올랐다.

조선에 있는 춘천 청평사까지 오게 된 공주는 청평사 앞 연

5) 춘천의 역사와 문화, 김영기, 춘천문화원, 1993, p. 101-102

못에 비쳐진 자신의 그림자를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몸속에 서려있던 뱀은 물속 공주의 그림자가 실제 공주 인줄 알고 연못속으로 뛰어들어가 죽어 버렸다. 그리하여 공주의 몸에 서려온 뱀은 공주의 그림자 때문에 떨어지게 되었으며 그 못을 영지(影池)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뜨내리재와 무작개⁶⁾

옛날 되소금장수가 소금을 지고 소양강 건너 마작산(麻作山) 줄기에 있는 뜨내리재를 넘을때면 이재가 떴다 내렸다 하는 것이었다. 소금짐을 뒤엎어 놓는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 어떤 되놈(胡人)은 이 고개를 넘다가 머리가 돌고 발광해 버렸다.

청인(淸人)이건 무엇이건 호(胡)자가 붙은 것이면 재를 넘지 못했다. 그래서 두 곱이나 먼 랑천(狼川; 화천)길로 해서 양구를 가야했다.

뜨내리재가 호인들의 발길만 닿으면 지축을 뒤흔들면서 미쳐버리게 만들어 놓는 것은 되놈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무작개의 원혼의 앙갚음 때문이라고 전해 온다.

병자호란 때 춘천 교외에 살고 있던 이석을봉(李石乙封)에게는 「무작개」라는 젊고 용감한 아내가 있었다. 호란으로 들이 닦친 호병들은 무작개를 보자 겁탈하려는 욕심이 솟구

쳤다. 호병하나가 덤지자 무작개는 사력을 다해 버티면서 머리로 호병의 턱을 치받아 이를 부러뜨려 놓았다. 호병은 자기 이빨이 부러진 보복으로 무작개의 머리가죽을 벗겼다. 그리고는 또다시 겁탈하려 대들었다. 이때 무작개는 있는 힘을 다해 호병의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죽어라 늘어졌다. 호병은 몸 부림치던 끝에 간신히 무작개의 손을 뿌리쳤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은 호병은 칼을 빼어 들고 자기 국부를 쥐고 늘어졌던 그녀의 손을 사정없이 잘라버렸다.

그리고는 또 다시 겁탈하려 대들었다. 두 손이 잘려 대할 수 없게 된 무작개는 호병의 코를 입으로 꼭 물어 잘라 버렸다. 그러자 호병은 자기 코를 물어버린 무작개의 입을 돌로 부셔 버렸다.

무작개는 세 번에 걸쳐 몸이 잘리고 부서지고 처단되었지만 펄떡펄떡 뛰는 무작개의 죽은 시체를 근처 굴속에 던져 버렸다. 그러자 갑자기 인근의 땅이 들쭉날쭉 떴다 내렸다 하면서 진동하기 시작하였다.

호병은 혼이 나가 죽었다. 그 후부터 호인이 뜨내리재를 밟으면 상하좌우로 지축을 흔들면서 미쳐버리게 만들어 끝내 이 재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 한다. 🌐

6) 춘천의 역사와 문화, 김영기, 춘천문화원, 1993, p. 104-105

